

두바이유 80달러 도달 가능성 충분

유가전문협회, 세계경기·석유 수요둔화로 ... 당분간 강세 유지 불가피

국제유가(두바이유 기준)가 당분간 배럴당 70달러 수준의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일시적으로 8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.

민·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7월18일 이란 핵 문제 및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 등 지정학적인 불안요인으로 국제유가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.

그러나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세계경기 및 석유 수요 둔화 등으로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.

이에 따라 협의회는 이란 핵 문제 진행상황을 비롯한 중동 정세와 허리케인 발생 등 하반기 국제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.

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산업자원부, 석유공사, 에너지경제연구원, 한국은행, 삼성경제연구소, 한국·중동협회, 국제금융센터, 국방연구원 등의 국제석유시장 및 중동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. (서울=연합뉴스 이상원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7/20>